

## 목 차

내용

쪽

### 하나님의 뜻

메시지 1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임 .....	2
메시지 2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함 .....	5
메시지 3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	8
메시지 4	하나님의 뜻 —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	11
메시지 5	주님의 명에(아버지의 뜻)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음 .....	15
메시지 6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 .....	19

## 전체 주제: 하나님의 뜻

### 메시지 1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임

성경: 엡 1:5, 9-11, 3:11, 5:17, 골 1:9, 계 4:11, 21:1-2, 9-11

I.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 엡 5:17, 골 1:9.

II.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 엡 1:5, 9, 11.

- A.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뜻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근원이다 — 엡 1:11, 3:11.
- B.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역시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우주의 기원의 심장부에 있다 — 계 4:11.
- C.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 엡 3:11.
- D.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이시다 — 골 1:15-18, 3:4, 10-11.
- E.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갖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 엡 5:32, 1:9, 22-23, 2:21-22, 4:16.
- F.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갖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어린양의 아내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표현할 것이다 — 빌 2:13, 엡 3:14-21, 계 21:1-2, 9-11.

III.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 엡 1:5.

- A.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갖고 계시며,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의 뜻에서 나오며 그분의 뜻 안에 체현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다 — 엡 1:5, 9, 11.
- B.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만드는 것, 곧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시는 것이다. 살아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은 분명 마음의 갈망을 갖고 계신다 — 엡 1:5.
- C.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따라, 곧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 엡 1:5.
  - 1.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그분의 본성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며 절차이다 — 엡 1:4.
  - 2.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목적 곧 목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 엡 1:5, 롬 8:29, 골 1:15.

IV. 우리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해졌다' — 엡 1:11.

- A.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의결은 그분의 뜻이나 의도를 성취하실 방법을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하신 결과이다.
- B. 창세전에 삼일성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회의를 여셔서 어떤 의결 곧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 결정은

그분의 확고한 뜻이다 — 벧전 1:20, 계 13:8, 엡 1:11.

**V. 하나님의 뜻은 비밀로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분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 A.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셨지만,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비밀이었다 — 엡 1:9, 3:3-5, 9.
- B.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하여,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 엡 1:9, 요 1:14, 롬 1:3-4, 4:25, 8:3, 34.

**VI. 궁극적으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 엡 1:10, 22-23, 계 21:1-2.**

- A.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때가 찰 때의 경륜 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머리로 세우셨다 — 엡 1:10, 22.
- B.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 계 21:1-2.
- C.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 롬 8:19-23.
  - 1. 온 우주는 사탄이 죽음의 요인인 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주입함으로써 붕괴의 무더기가 되었다 — 히 2:14, 롬 8:20-21.
  - 2.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창조물을 속박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 엡 1:22, 10.
  - 3. 우리 모두는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어야 한다 — 골 1:12-13.
  - 4.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에서뿐 아니라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 골 1:12-13, 엡 2:1-8, 21-22.
- D.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키실 것이다 — 고전 15:20-28.
  - 1.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고 계신다 — 엡 1:4, 22-23.
    - a.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 아래에만 있다. 또한 우리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다.
    - c.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인 그분의 아들들을 우주적인 붕괴에서 이끌어 내시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이다 — 엡 1:22, 4:15, 5:23, 골 1:18, 2:10, 19.
  - 2.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길을 얻으신다 — 엡 1:22-23, 10.
    - a.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 엡 3:9-11.
    - b.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이다 — 엡 1:22-23.
  - 3. 교회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이다 — 엡 4:15, 고전 11:3.
    - a.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다.
    - b.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를 알 수 없다.

- c.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한다 — 엡 4:15.
  - d.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 — 딤후전 1:4, 3:15, 엡 1:1, 3:2, 9, 16-17.
  - e. 하나님은 하나의 행정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고 계시는데, 이 행정은 달콤한 분배이자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자 편안한 가정 안배이다 — 엡 1:10, 3:2, 딤후전 1:4, 3:15.
- E. 교회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과 빛에 의해 이루어진다 — 요 1:4, 8:12.
- 1.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길은 사탄과 대립되시는 그리스도,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 어둠과 대립되는 빛, 혼란과 대립되는 질서이다.
  - 2. 붕괴는 죽음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 겔 37:4-10.
  - 3.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eness)를 회복하시는 길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해 주시는 것이다 — 롬 8:6, 10-11, 19-21.
  - 4. 붕괴의 무더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다.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우주적인 붕괴로부터 구출될 것이다 — 엡 4:15, 골 2:19.
  - 5.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난다 — 요 1:4, 엡 5:8-9.
    - a.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 — 요 8:12.
    - b.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빛 아래 있다면, 혼란에서 구출되어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 F.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완전한 성취일 것이다 — 계 21:2-3, 23-25, 22:1-2상.
- 1.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은 생명으로 적셔지고 빛 아래 있을 것이다 — 계 22:1, 21:23.
  - 2.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 머리를 둘러싼 몸, 성의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민족들을 본다. 온 우주는 투명한 성을 통해 나타난 빛 가운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 계 21:18.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함

성경: 엡 1:9-10, 4:15-16, 골 2:19, 고전 8:1하

- I.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엡 1:9-10.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 혹은 시대적인 안배는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 B. 이것은 생명의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 안에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이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성취된다.
- C. ‘때’는 시대들을 가리킨다.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이다.
1. 분배(dispensation)는 분배하는 행동이나 분배하는 특별한 일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시대들에는 모두 네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시대(아담), 율법 시대(모세), 은혜 시대(그리스도), 왕국 시대(천년왕국)이다.
  3.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요셉 안으로 분배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셨고, 두말할 나위 없이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더욱더 많이 분배하셨다.
  4. 이러한 분배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계속된다. 현재 하나님의 분배는 사도 바울의 때에 있었던 분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분배되고 있다 — 비교 엡 3:2, 뵤전 4:10.
  5. 이 분배는 천년왕국을 거쳐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궁극적인 분배, 완결된 분배는 삼일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 성 전체 안으로 분배하는 것일 것이다 — 계 22:1-2.
  6. 우리는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이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린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수이신 그 영을 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완결된 분배를 기다린다. 완결된 분배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다 — 고전 10:3-4, 12:13, 계 2:7, 22:2, 14, 요 6:57.
  7.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도 있다(요 1:4, 8:12).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삼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통제하는 빛일 것이다(계 21:23).
  8.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나 죽음이나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생명과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고 좋은 질서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완전히 통일되게 할 것이다(계 21:24, 엡 1:10).
  9.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완전히 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일 것이다.
- D.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모든 항목, 곧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과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결과이다.
- E.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

진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의 배역과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붕괴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

- F.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고(사 2:4, 11:6, 55:12, 시 96:12-13), 모든 것이 그 붕괴에서 완전히 구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만물이 복원될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행 3:21).
- G.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죽고 메마르고 흠어진 뼈들의 그림은 진정한 하나 안에서 몸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얻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 죽은 사람들 안으로 숨이 들어갔을 때, 그 숨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은 살아나 하나로 일어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2. 죽은 뼈들은 생명의 분배와 생명의 성장의 결과로 살아났고 하나가 되었다 — 겔 37:1-14.
  3.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길은 생명의 요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몸 안에서 서로서로를 견고하게 연결시키시는 것이다.

**II.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의미한다 — 엡 4:15, 숙 4:10.**

- A. 몸의 유기적인 건축은 몸의 성장이며,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 엡 2:21-22, 4:16, 골 2:19.
- B. 자라는 지체가 건축하는 지체이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엡 4:16, 비교 욥 1:1-5, 42:1-6.
- C.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신성한 사랑의 요소와 범위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여기서 진리는 참된 것들을 의미한다 — 엡 4:15, 롬 3:4.
  1.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붙잡아야 한다 — 딤후 1:3-4.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 엡 3:9.
    - b. 이 경륜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엡 3:10-11, 1:22-23, 고전 1:30.
  2.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 요 14:6, 엡 1:23.
    - a. 그분의 분량은 측정할 수 없다 — 엡 3:18.
    - b. 그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다 — 엡 3:8.
    - c. 그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 — 엡 3:19.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잡아야 한다 — 딤후 3:15.
    - a.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행 9:4, 고전 12:12.
    - b.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충만이자 표현이다 — 엡 1:23, 3:19.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 골 2:19, 비교 수 9:14, 뱀전 5:3, 마 20:25-27, 23:10-11.
  1.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다 — 고전 11:3.
  2.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 엡 5:23.
  3.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다 — 엡 1:22, 10.
- E.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자 함으로써, 곧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한다 — 요 1:4, 8:12, 엡 4:15-16, 5:8-9, 계 21:23-25.
- F.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 안에서 증가하시고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1.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롬 8:6).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알고 사용하며 훈련해야 한다(딤후 4:6-8).
    - a.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 을 얻도록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 b. 에베소서 2장 22절은 모든 믿는 이들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c. 에베소서 3장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영 안에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 d. 에베소서 3장 16절은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이 속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 e. 에베소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한다.
  - f.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충만해지라고 말한다.
  - g.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2.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체현인 거룩한 말씀을 젖과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 — 벰전 2:2, 히 5:13-14.

### III. 우리가 생명 안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때,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기능이 머리이신 분에게서 나올 것이다 — 엡 4:16, 골 2:19.

- A. 우리가 각각의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몸의 다른 지체들 안으로 옮겨 부어 줄 것이다 — 고전 14:4하, 요 7:37-39.
  - 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 고후 3:6, 8.
  - 2. 우리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빌 1:25, 고후 1:24.
- B.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온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한다 — 엡 4:15-16.
  - 1. 이러한 성장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 곧 그리스도의 몸 안의 모든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 일어난다 — 엡 4:11-12.
  - 2. 이러한 성장은 각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 안의 모든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 엡 4:7-8.
- C.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 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는 가장 뛰어난 길은 바로 사랑이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과 합당한 관계 안에 지켜 줄 수 있다 — 고전 12:31하-13:13.
  - 2.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요일 4:8, 16) 안으로 이끌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엡 5:25, 6:24, 1:4, 3:17, 4:2, 15-16, 5:2).
  - 3.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고전 8:1하)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을 가리킨다.
- D. 생명이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기능은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에 몸의 건축을 위해 머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에 참여하는 것이다 — 엡 4:15-16.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

성경: 행 13:22, 36, 엡 1:9-11, 3:9-11, 히 10:5-10, 롬 12:1-21

I. 구약에는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긴 사람이었다(행 13:22, 36). 다윗의 마음에 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삼상 13:14상, 왕상 8:17, 대상 22:7, 28:2, 마 16:18, 엡 2:20-22, 4:16).

II.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뜻의 의결, 하나님의 목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와 표현을 위해 한 몸을 얻는 것이다 — 엡 1:9-11, 22-23, 3:9-11.

A.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있고,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확대와 표현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된 한 몸을 얻는 것이다 — 숙 12:1, 요 1:12-13, 엡 5:26, 고후 4:16, 3:18.

B.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또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엡 3:9-10.

C. 에베소서 3장은 특정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1:9), 곧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밝혀 준다.

1.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라는 것을 제시한다.

2.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새사람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엡 2:10, 15-16.

3.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엡 3:8, 14-19.

4.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이라는 것과 이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엡 4:4-6, 11-16.

5.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임을 제시한다 — 엡 5:8-9, 25-27.

6.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엡 6:10-20.

D.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고전 12:24). ‘섞다’라는 말은 또한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 등을 의미한다.

1.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섞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2. 섞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섞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엡 3:8-10, 1:9-10)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계 21:2)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III.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치하시는 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 히



10:5-10, 시 40:6-8.

- A. 새 언약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제정하는(마 26:28) 요인이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전부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 B.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대치하시고, 구약에서 예표로 사용된 모든 것들을 폐지하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옛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결하시기 위해 시대를 바꾸셨다(고후 5:17, 갈 6:15). 그분께서 시대를 바꾸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우주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1.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레위인 봉사의 희생 제물들을 대치하시고 종결하시기 위해 오셔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했다(6, 11-12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모든 제물을 대치하시기 위해서였다(히 10:5).
  2. 그리스도는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의 희생 제물들을 폐지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을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 히 10:9.
    - a. '두 번째 것'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 히 10:9.
    - b. 이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히 10:10.
- C. 그리스도께서 제물들의 실재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진실함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기 위하여, 신성한 실재가 우리의 참됨과 성실함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 요 4:23-24.
1.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었던 번제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 곧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민 28:2-3, 요 7:16-18.
  2. 소제물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시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한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2:1, 4, 요 7:46, 18:38, 19:4, 6.
  3. 화목제물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교통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만족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다 — 레 3:1, 엠 2:14-15, 요 12:1-3, 20:21.
  4. 속죄제물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의 죄악된 본성을 처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4:3, 고후 5:21, 롬 8:3, 요 1:29, 3:14.
  5.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처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5:6, 뱀전 2:24, 3:18, 사 53:5-6, 10-11, 요 4:15-18.
  6. 요제물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7:30, 10:15.
  7. 거제물은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강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7:32, 출 29:27, 엠 1:21.
  8.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서 쏟아부어지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쏟아부어지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23:13, 출 29:40, 민 28:7-10, 사 53:12, 빌 2:17, 딤후 4:6, 샅 9:13.
- D.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를 위해 모든 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분의 우주적이고 확대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를 이루는 것이다 — 요 14:23, 계 21:3, 22.

IV.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몸의 생활을 실행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갖게 하는 것이다 — 롬 12:1-21.

-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몸의 다른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게 한다 — 롬 12:4-5.
1. 로마서 1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두 단어는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사상 혹은 사실을 함축한다.
  2. 몸의 실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명한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 B.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인 교회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필요하다. 드러진 몸과 변화된 혼과 불타는 영은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는 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 롬 12:1-2, 11.
1.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한 희생 제물로 드러야 한다.
    - a.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은 복수형이고 ‘희생 제물’은 단수형이다. 이것은 비록 많은 몸이 드러지지만 그들이 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봉사가 분리되거나 서로 상관없는 개별적인 많은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 b.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의 전체적인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봉사이기 때문에 유일해야 한다.
  2. 우리 몸을 드러낸 후에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 롬 12:2-3.
    - a.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생각을 영에 둔(롬 8:6) 결과이며, 우리의 혼이 변화되기 위한 기초이다. 우리의 생각은 혼을 주도하는 부분인데, 생각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의지와 감정 또한 자동적으로 이 생각을 따라 새로워진다.
    - b.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적으로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산출하여 우리를 교회생활의 실행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적합하게 만든다.
  3. 우리는 분발되고 격려받아 교회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 죽은 공허한 지식과 교리적인 형식은 우리를 하락하고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실재를 누릴 수 있도록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야 한다 — 롬 12:11, 계 3:16, 19-22.
- C.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은혜는 어떤 기능과 능력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온다. 이러한 기능과 능력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과 더불어 생명의 은사로 발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 롬 12:4-8.
- D.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이며, 교회생활과 부합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여 준다. 그러한 생활은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몸의 생활을 위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 롬 5:17.
- E.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롬 5:10-11)은 우리가 은혜(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실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지적인 몸의 생활이다.

하나님의 뜻 —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경: 히 2:10-11, 12:10, 14, 엡 1:4-5, 5:26, 살전 4:3상, 5:23-24, 요 17:17

I.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분되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 살전 4:3상, 뱀전 1:15-16, 엡 1:4-5, 5:25-27.

II.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은 거룩하게 하심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화하시는 것’이다.

A. 영원 과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아들의 자격을 위해 혹은 결과적으로 아들의 자격을 갖도록)’ 선택받았다 — 엡 1:4-5, 계 21:2, 9-11.

B.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 — 히 2:10-11.

III.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심에는 세 방면이 있다.

A.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한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기 이전에 일어난다 — 뱀전 1:2.

B.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믿을 때 일어난다 — 히 13:12, 9:13-14, 10:29.

C. 그 영의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 살전 5:23-24, 롬 15:16하, 6:19, 22, 비교 5:10, 계 22:14, 뱀후 1:4.

IV.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의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A.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 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B.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 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요 17:17, 엡 5:26-27, 고전 6:11, 12:3하, 히 12:4-14, 롬 8:28-29, 엡 4:30, 살전 5:19, 계 2:7상, 시 73:16-17, 25-26.

1. 찾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 뱀전 1:2, 눅 15:8-10, 17-21, 요 16:8-11.

2.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 히 13:12.

3.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 창조물로 만든다 — 요 1:12-13, 고후 5:17, 갈 6:15.

4.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 — 롬 12:2하, 6:4, 7:6, 엡 4:23, 겔 36:26-27, 고후 4:16-18.

5.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로 만든다 — 고전 3:12, 고후 3:18.
  6.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하심, 곧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롬 8:29.
  7.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빌 3:21, 롬 8:23.
- C. 신성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 롬 15:16하, 8:4.

**V. 우리가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해 주셔야 한다 — 살전 3:13.**

- A.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요 14:1, 16:22, 행 11:23)와 우리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히 10:22, 요일 3:20)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B.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자유롭게, 장애 없이 작용하지 못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 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 C.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변하기가 쉽다 — 비교 딤후 4:10, 마 13:18-23.
- D. 타고난 사람의 생명에 따르면, 마음이 견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도 신뢰할 수가 없다 — 렘 17:9-10, 13:23.
- E.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많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나무랄 데 없는 마음이다 — 시 57:7, 108:1, 112:7.
- F.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 겔 36:26, 고후 4:16.
- G.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상태, 곧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하나님께 점유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진 상태로 견고하게 되며 건축될 수 있다 — 딤후 3:5, 롬 6:19, 22, 고후 3:16-18, 마 5:8, 시 51:10-12.
- H.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지속적인 새롭게 하심에 의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견고하게 되는 동안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며,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성이 되어 간다 — 계 21:2, 요일 5:11-12, 벧후 1:4.

**VI.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 살전 5:23-24.**

- A. 화평의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화평이 온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게 될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된다 — 살전 5:23, 13, 살후 3:16.
- B.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거룩함이신 그분을 기꺼이 추구하며 이 일에서 그분과 협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벧전 1:15-16).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히 12:14).
- C.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본질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본성

에서 우리를 그분과 완전히 똑같이 만드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 살전 5:23.

1.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망쳐졌고, 혼은 오염되었으며, 영은 죽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우리의 온 존재는 구원받고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된다.
2.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죽게 하는 모든 요소에서부터 우리의 영을 보존하시고(히 9:14), 천연적이고 낡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며(마 16:24-26), 죄로 인해 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보존하신다(살전 4:4, 롬 6:6).
3.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철저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
4. 양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키신다.
5.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계속해서 성령의 적시심 안에 둬으로써,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협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살전 5:12-24.

**VII.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딤후 4:6-7.**

- A.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계속 살아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죽어 있는 상태에 버려두게 될 것이다 — 딤후 1:6-7, 비교 유 19.
  1.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 내는 것이다 — 살전 5:16-18.
  2.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을 죽이는 상황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 비교 민 6:6-8, 고후 5:4.
  3.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 요 4:24, 롬 1:9, 빌 2:1.
- B.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모든 더러움과 오염에서 지켜야 한다 — 고후 7:1.
- C.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 행 24:16, 롬 9:1, 비교 8:16.
- D.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해야 한다 — 말 2:15-16, 롬 8:6, 고후 2:13.

**VIII.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의 주요 세 '동맥', 곧 우리의 혼의 부분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이 해야 한다 — 비교 시 43:4, 느 8:10, 요일 1:4, 렘 15:16.**

- A.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롬 12:2),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적셔져야 하며(엡 3:17, 19), 우리의 의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하고(빌 2:13),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막 12:30).
- B.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의 주요 세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길은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를 빛 안으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결점과 실수와 패배와 실수와 악행과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 요일 1:5-9.
  1. 우리의 생각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생각하는 방식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한다.

2. 우리의 의지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반역의 세균들을 자백해야 한다.
3. 우리의 감정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과 심지어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해 온 것을 자백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랑한 것을 자백해야 한다 — 비교 계 2:4, 6.
4.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의 주요 세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났고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IX.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됨 안에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수행하기 위해 몸의 생활을 실행할 수 있다 — 롬 12:1-2, 살전 4:4, 5:18.**

- A. 우리의 타락한 몸인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집회 장소’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다 — 롬 6:6, 12, 14, 7:11, 17-25, 8:2-3, 고전 6:15, 19.
- B.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6:20.
- C.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확대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빌 1:20.
- D.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혼인 옛사람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죄의 몸은 그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것이다 — 롬 6:6.
- E.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 죄악된 것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의에게 노예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 롬 6:13, 18-19, 22, 살전 4:3-5.
- F.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되려는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의 몸을 처서 노예로 삼아야 한다 — 고전 9:27, 계 21:2.

주님의 명예(아버지의 뜻)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음

성경: 창 1:26, 31, 2:1-2, 마 11:28-30, 출 31:12-17, 사 1:1, 2:1, 13:1, 15:1

- I.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명예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 마 11:28-30.
- A.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마 11:25-27),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 나아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
- C.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명예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 E.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46).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1.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명예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그들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한다 — 마 11:29상, 뱀전 2:21.
  2. 일생 동안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신 주님은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 빌 2:5-11, 히 5:7-9.
  3.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시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한다.
  4.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히 13:20-21).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빌 2:13).
- F.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 G.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H. 주님의 명예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I.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주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엡 4:20-21, 뱀전 2:21.
- J. 주님의 명예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명예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K. ‘편하고’에 대한 헬리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 L. 우리가 주님의 명에(아버지의 뜻)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명에는 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다.

**II.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재이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온과 완전한 만족이시다 — 히 4:7-9, 사 30:15상.**

- A.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명령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삽입 부분이 뒤따라 나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 곧 일꾼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려 준다.
- B.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지만 알 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 1.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 — 창 1:26, 31, 2:1-2.
  - 2. 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정해져 기념이 되었다(출 20:8-11).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 3.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 4.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비교 마 11:28-30).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막 2:27).
- C.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었다.
  - 2.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든 신 작품,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생물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창 1:31).
  - 3.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 — 창 1:26, 2:7, 비교 요 4:31-34.
  - 4.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혼’이셨다(비교 창 2:18, 22).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표현함으로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후 11:2, 엡 5:25).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한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양의 아내라 불린다(계 21:9-10).
  - 5.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
  - 6.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 D.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가진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 2.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로 취했다고 생각했다 — 행 2:4상, 12-13.
  - 3.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오직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여덟째 주의 첫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본다.

4.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 E.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기 위한 힘과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실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2.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곧 속을 채워 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시를 가졌고,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다 — 행 2:1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런 다음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서 일한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항상 추구해야 한다 — 고후 13:3, 행 6:4.
- F.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 혹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 보증하는 것이다 — 출 31:16.
  1. 주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 비교 고전 12:13, 요 6:57.
  2. 베드로는 오순절 날 말씀을 전할 때에 내적으로 예수님께 참여하면서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 G.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출 31:13).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하나 됨으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즉 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육체에 속하고 타고난 모든 것을 대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 H.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출 31:14-15).
- I.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를 한 가지 것, 곧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시는 안식일로 이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며, 성막은 우리를 안식으로,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끈다!

### III. 주님의 멍에(아버지의 뜻)는 편하고, 주님의 짐(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은 가볍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에서 받은 부담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 A. 하나님께 열린 영은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부담을 받고 부담을 해방하기를 배워야 한다 — 눅 1:53, 시 27:4, 사 59:16, 골 4:2.
- B. 신언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으면 교회의 건축을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언하는 것이 없다 — 사 1:1, 2:1, 13:1, 15:1, 스후 12:1, 말 1:1, 행 6:4, 고전 14:4하.
  1.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해방된다 — 고전 2:11-16.
  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말의 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느냐의 여부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려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한다 — 말 2:7.

3.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짚어지고, 사람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 출 28:29-30.
- C.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에게서 받은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1. 부담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은 것이 되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부담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 있고 번성할 것이다.
  2. 부담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처리받는다. 부담이 있으면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처리를 받아야만 우리의 부담을 해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3.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봉사하기보다 의무에 따라서 봉사한다면, 이러한 봉사는 주님의 임재를 잃게 할 것이다 — 비교 신 4:25.
  4. 언제든지 우리의 봉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되면, 우리의 봉사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 말 3:14과 각주 1.
  5.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을 예표하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려서 상쾌해짐으로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내적인 안식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

성경: 마 7:21, 12:50, 18:20, 엡 3:8, 골 1:12, 고전 14:26, 히 10:25

I. 집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 히 10:25.

II.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속생명을 제외하고는 교회 집회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고전 14:23-26.

A.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이들의 집회 혹은 모임이다 — 마 18:17-20.

1.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 곧 집합적인 한 백성의 집회이다.
2.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이다 — 행 2:42, 8:1.
3.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집회에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 엡 1:5, 롬 8:29, 고전 14:26.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회하는 생활이다 — 히 10:25, 고전 14:23-26.

1. 우리가 받은 은혜 중 많은 부분이 집회 안에서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 중 많은 부분 역시 집회 안에서 하신 것이다 — 행 4:33, 13:1-2.
2.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회하는 생활이고 주님의 일의 많은 부분이 집회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히 10:25.

III. 집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 시 73:16-17.

A.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 — 요 7:17.

B. 우리의 집회 중에 표면 아래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C. 시편 작가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 시 73:16-17.

1.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와 교회 안에 있다 — 엡 2:22, 딤후 3:15.
2.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3. 일단 성소 안에, 곧 영 안에와 교회 집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인식을 얻게 된다 — 시 73:16-20.
4.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밝혀진다 — 시 73:17.
  - a.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와 집회 안에서 신성한 계시를 받는다 — 계 1:10, 엡 1:17-18.
  - b.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 — 시 73:17.

IV.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며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 골 1:9, 15-18, 3:4, 11, 고전 14:26.

A.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이다 — 골 1:9, 15-18, 3:4, 11.

B. 우리의 집회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 — 고전 14:26.

C. 합당한 교회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람하는 교회 집회에 달려 있다 — 엡 3:8.

D. 우리의 집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전람이다 — 고전 14:26, 비교 신 12:5-7, 13-14.

- E. 집회에서 우리는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리스도를 전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 — 히 10:8-10, 25, 13:20-21.
- F.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골 1:12, 고전 14:26.
  - 1. 기독교의 영향으로 많은 믿는 이들이 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집회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관념이 근본적인 잘못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쓸모없게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술책이다.
- G.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봉사는 모이는 것이다 — 고전 12:4-11, 14-27, 히 10:25.
  - 1. 교회 집회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이다 — 골 3:11.
  - 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위임을 받았다 — 마 7:21, 16:18, 엡 3:8, 골 1:12.
  - 3.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임으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집회의 목적 이루세(영어 가사 직역)” — 영한 동번 찬송가 86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24장) 8절.

**V.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집회하는 길에 따라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 마 7:21, 12:50, 엡 4:16, 고전 14:26.**

- A. 믿는 이들의 집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하며, 집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딤후 1:4, 엡 3:9, 고전 14:26.
- B. 주님의 생각에 따른 회복은 그분의 믿는 이들을 성직자-평신도 제도에서 이끌어 내고, 이 제도를 성경적으로 집회하고 봉사하는 길로 대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고전 14:26, 엡 4:12, 16.
- C.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상호성 가운데 있는 교회 집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고전 14:4하, 24상, 26, 31.
  - 1. 교회 집회에 올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고전 14:26.
  - 2.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을 누림으로써, 주님에게서 나온 무언가나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오도록 집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 3.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여 교회 집회에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한다 — 골 1:12, 엡 3:8.
  - 4. 이렇게 하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이며, 또한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서로 함께 나눌 것이다 — 고전 14:26.
  - 5. 교회 집회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고전 14:3-5, 12.
- D. 성경적으로 집회하고 봉사하는 길을 실행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탁월한 은사인 신언을 강조한다 — 고전 14:1, 4하, 24-25, 31.
  - 1.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신언의 의미는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말해 내며, 심지어 다른 이들로 주님을 말해 놓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신성한 분배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는 모두 신언하는 것으로 완결된다 — 고전 14:3, 24-25, 31.
  - 2.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여 하나님을 말해 내는 것인 신언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 고전 14:25.
  - 3. 하나님은 믿는 이들 모두가 신언하기를, 즉 그분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말해 내기를 갈망하신다 — 고전 14:1하, 31, 비교 민 11:29.
  - 4. 신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신언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특별한 은사이다 — 고전 14:3-5, 12, 24, 26.